

조사보고서

중소기업 졸업기업 경영실태 조사

2014. 5



목 차

I. 조사 개요	1
II. 조사 결과	2
1. 중소기업 졸업과 그에 따른 제도변화에 대한 인지 여부	2
2. 중소기업 졸업 이전과 이후 경영실태 비교	2
3. 중소기업 졸업 이후 변화하는 경영여건에 대한 인식	3
4. 향후 성장에 대한 전망과 계획	4
5. 중견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보완점	6
III. 시사점	7

I.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2011~2013년 중소기업을 졸업한 239개사
- 조사시기 : 2014년 4월 21일(월) ~ 5월 16일(금)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 및 팩스 조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 문헌조사
- 조사대상 특성(응답기업 기준)

기업구분	빈도수	백분비
전체	239	100.0%
제조업	133	55.6%
비제조업	106	44.4%

II. 조사 결과

1. 중소기업 졸업과 그에 따른 제도변화에 대한 인지 여부

- 응답기업 중 절반가량은 중소기업을 졸업하면서 새롭게 적용받는 규제와 지원 축소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남
 - 새롭게 적용받게 되는 규제와 축소되는 정책지원 등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그렇다'(54.8%), '그렇지 않다'(45.2%)로 응답

2. 중소기업 졸업 이전과 이후 경영실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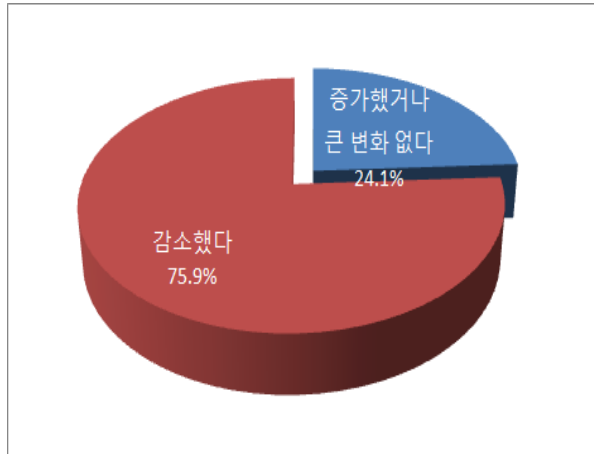
< 매출 >

- 중소기업 졸업 전후 3년 평균 매출액증가율은 졸업 전 16.2%에서 졸업후 2.7%로 감소함
 - 매출액증가율이 증가했거나 큰 변화가 없는 기업(24.1%), 감소한 기업(75.9%)
- 최근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중견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도 비슷한 추세로 하락함
 - * 우리나라 실질경제성장률 추이 : 6.5%('10)→3.7%('11)→2.3%('12)→3.0%('13)
 - * 기업의 매출액증가율(한국은행) : 16.9%('10년)→12.6%('11년)→4.9%('12년)→0.7%('13년)
 - * 조사대상 중견기업 매출액증가율 : 22.9%('10년)→13.4%('11년)→8.5%('12년)→2.4%('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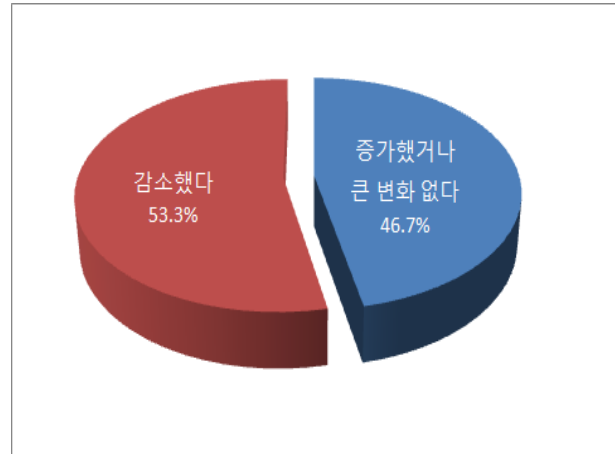
< 고용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초기 중견기업 239개 감사보고서를 분석 해본 결과, 중소기업 졸업 전후 3년 평균 고용증가율은 졸업 전 7.1%에서 졸업 후 6.2%로 감소함
 - 고용증가율에 증가했거나 큰 변화가 없는 기업(46.7%), 감소한 기업(53.3%)
-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증가율이 저조한 추세에서도 초기 중견기업들의 고용증가율이 유지되고 있음
 - * 기업의 고용증가율(고용노동부) : 4.8%('11년)→2.1%('12년)→1.3%('13년)
 - * 조사대상 중견기업 고용증가율 : 5.5%('10년)→4.8%('11년)→8.7%('12년)→5.6%('13년)

[그림 1] 매출액증가율 변화



[그림 2] 고용증가율 변화



< 투 자 >

- 중소기업 졸업 이후 R&D 등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거의 변하지 않았다’(65.7%), ‘증가했다’(29.7%), ‘감소했다’(4.6%) 순으로 집계됨

< 판 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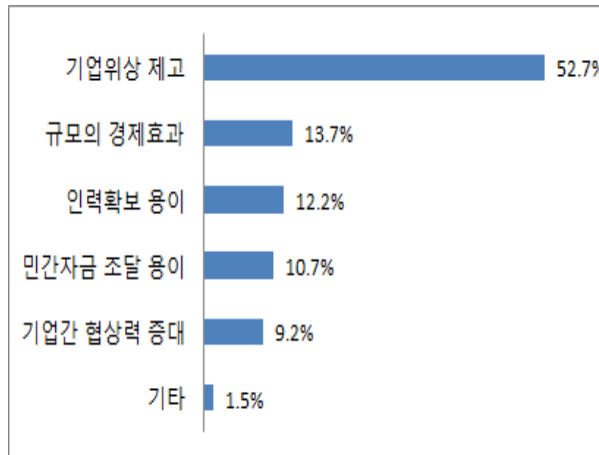
- 현재 내수와 수출의 비중에 대해 ‘내수비중이 높다’(68.6%), ‘비슷하다’(16.8%), ‘수출비중이 높다’(14.6%) 순으로 집계됨
 -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내수에 집중할 것’(63.9%), ‘수출에 집중할 것’(36.1%) 순으로 집계됨

3. 중소기업 졸업 이후 변화하는 경영여건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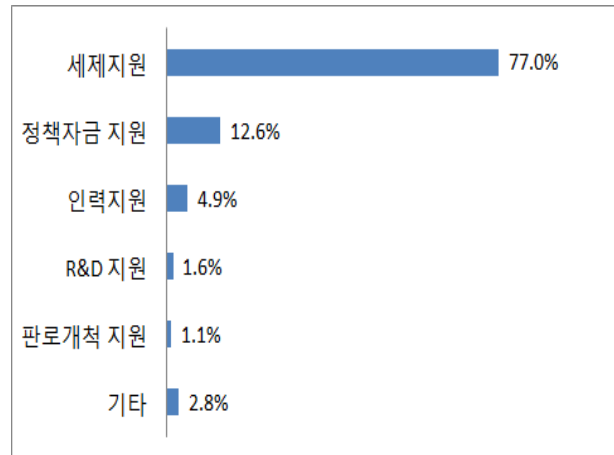
- 중소기업이었을 때와 비교해 중견기업이 되었을 때 장점과 단점 중 어느 것이 더 큰지에 대해서는 ‘단점이 장점보다 크다’(57.4%), ‘비슷하다’(32.7%), ‘장점이 단점보다 크다’(9.9%) 순으로 집계됨
- 중견기업이 되면서 얻는 가장 큰 장점으로 ‘기업위상 제고’(52.7%), ‘규모의 경제 효과’(13.7%), ‘인력확보 용이’(12.2%), ‘민간자금 조달 용이’(10.7%), ‘기업간 협상력 증대’(9.2%), ‘기타’(1.5%) 순으로 집계됨

- 중소기업 졸업으로 줄어드는 정책지원 중 가장 부담이 큰 것은 '세제지원'(77.0%), '정책자금 지원'(12.6%), '인력지원'(4.9%) 'R&D 지원'(1.6%), '판로개척 지원'(1.1%), '기타'(2.8%) 순으로 집계됨

[그림 3] 중견기업의 장점



[그림 4] 가장 아쉬운 정부지원 축소



4. 향후 성장에 대한 전망과 계획

-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9.4년으로 나타났음

- 기간별로는 '10년 이상~20년 미만'이 30.5%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년 이상~30년 미만'(26.4%), '10년 미만'(25.1%), '30년 이상'(18.0%) 순이었음

[표1] 법인 설립 후 中企 졸업까지 걸린 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	계
25.1%	30.5%	26.4%	18.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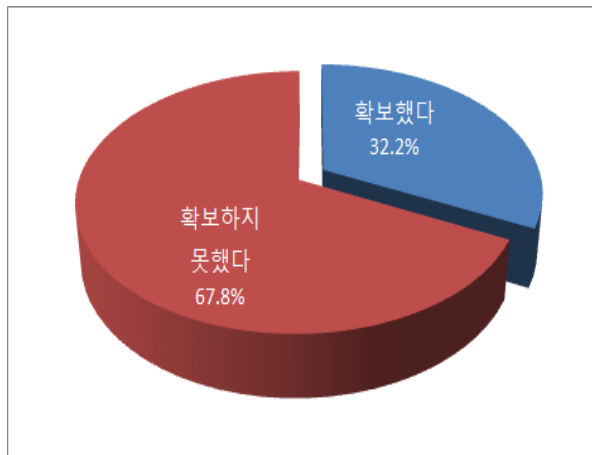
- 내수기업보다 수출기업의 졸업기간이 평균 25년 더 짧음.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평균 17.8년이 걸리는데 비해 내수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평균 20.3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됨

[표2] 내수, 수출기업 中企 졸업 소요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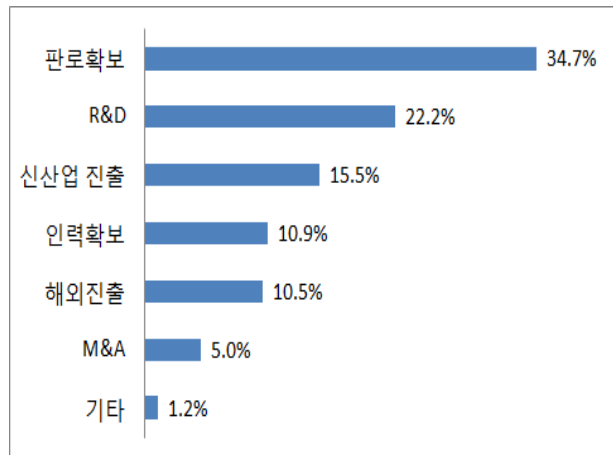
내수비중이 높은 기업	내수와 수출 비중이 비슷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전체평균
20.3년	17.3년	17.8년	19.4년

- 향후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시간은 '10년 이상'(58.6%), '5년 이상 ~ 10년 미만'(18.8%), '3년 이상 ~ 5년 미만'(17.2%), '3년 미만'(5.4%) 순으로 집계됨
- 중견기업이 되고 난 후 지속성장을 위한 동력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으나 노력중이다'(67.8%), '이미 확보했다'(32.2%)로 집계됨

[그림 5] 성장동력 확보여부



[그림 6] 성장동력 확보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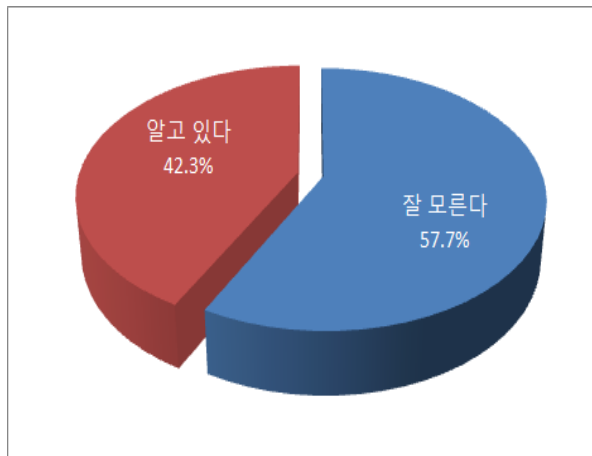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판로확보'(34.7%), 'R&D'(22.2%), '신산업 진출'(15.5%), '인력확보'(10.9%), '해외진출'(10.5%), 'M&A'(5.0%), '기타'(1.2%) 순으로 집계됨
- 성장방향성에 대해서는 '업종전문화'(72.2%), '업종다각화'(27.8%)로 집계됨

5. 중견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보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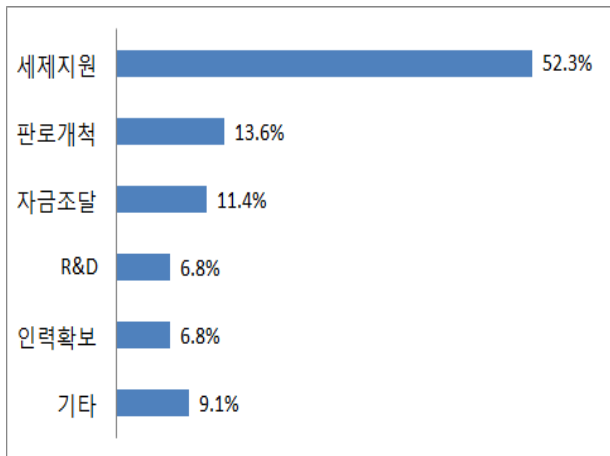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42.3%), ‘잘 모른다’(57.7%)로 집계됨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들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세제지원’(52.3%), ‘판로개척’(13.6%), ‘자금조달’(11.4%), ‘기타’(9.1%), ‘R&D’(6.8%) ‘인력확보’(6.8%) 순으로 집계됨

[그림 7] 성장사다리 정책 인지도



[그림 8] 보완해야할 분야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정책 주요내용〉

명칭	주요내용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R&D 세액공제율(8%)을 3년 평균 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에까지 적용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 완화	중소 적합업종 규제 수준 완화 조정 권고
기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범위 확대	매출 2,000억원 이하를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
판로기반 확보	매출 2,000억원 미만 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경쟁시장 참여 제한적 허용
인력확보	고용유자증가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성장단계별로 차등화
투자금융환경 개선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의 중견기업 투자 허용 등
하도급거래 부담 완화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중견기업 수급사업자로서 보호
글로벌 경쟁력 제고	R&D투자 확대,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 중견기업 전용 펀드 조성 등

* 출처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본격화’ 보도자료 요약 (‘13. 9. 17 관계부처 합동)

Ⅲ. 시사점

-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은 고용창출 능력을 유지하고 있음
 - 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세법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표3]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현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3개년 매출평균 3천억원 미만 - 설비투자금액의 2~6% 세액공제 * 기본공제: 2~3%, 추가공제 3%
R&D 비용 세액공제	- 3개년 매출평균 5천억원 미만 - R&D 비용의 8%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 3개년 매출평균 3천억원 미만 - R&D 설비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제도	- 직전연도 매출 3천억원 미만 - 가업상속재산의 100% 공제(200~500억원 한도)

- 성장성의 경우 경기변동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중견기업 매출구조가 해외보다는 경기에 민감한 내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수출비중 확대 등 판로구조 다양화를 통해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응답기업 다수가 향후에도 내수에 주력할 것이라 응답한 만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노력도 필요
- 중소기업 졸업으로 겪는 애로는 세제지원의 축소와 정책자금 지원축소와 같이 실질적이고 단기적으로 시급한 반면, 중견기업이 되면서 얻는 장점은 기업위상 제고와 같은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이득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음
 -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시급한 애로해소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중견기업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려면 정부의 정책홍보 노력 중요
 - 기업에서도 제도적 환경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함